

총설

첨성대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문규†

1. 머리말

경주에 있는 석조 건축물 첨성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문화재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¹ 하지만 첨성대를 과학 문화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회의적인 연구자들도 있다. 첨성대 논쟁의 결과이다. 동양 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었던 첨성대에 대해 20세기 중반부터 어쩌면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첨성대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또 그에 대한 비판들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과학사학자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첨성대 논쟁이라 부르기에는 손색이 없을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²

첨성대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첨성대를 주제로 몇 차례의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논쟁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쟁은 더욱 달아오르게 되었다.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3.45.3.537>

†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과학문화연구센터, yiga@jbnu.ac.kr

¹ “과학 문화재”는 198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전상운, 『우리 과학 문화재의 한길에 서서』 (사이언스북스, 2016), 40.

²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첨성대 논쟁에 대해서는 이문규, “첨성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첨성대 해석의 역사와 신라시대의 천문관”, 『한국과학사학회지』 26:1 (2004), 6-16을 참고.

물론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들도 적지 않았다. 첨성대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첨성대를 건립한 신라인들과 그 시대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삼국시대의 천문학 성과를 비롯하여 한국의 천문학 관련 문화재와 전통 천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들도 축적되었다.

첨성대 논쟁이 시작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렇지만 세대를 넘어서 첨성대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얼핏 단순히 보이는 석조 건축물 하나를 두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다투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도 첨성대에 관한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로지 첨성대만을 주제로 한 저서도 두 권 출판되었다.³ 당연히 이들 저서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첨성대에 관한 연구 성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쩌면 첨성대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단시일에 쉽게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첨성대에 관한 최근 논의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대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첨성대 논쟁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주요 사항을 첨성대의 명칭, 형태, 구조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첨성대에 관한 최근 논의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지점들을 찾아 제시하고 나아가 그것들이 쟁점으로 부각하게 된 이유나 과정 등을 드러내어 향후 첨성대 논의를 생산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첨성대에 관해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천문대설” 즉, 첨성대를 천문대로 보는 관점을 지지하면서 나온 최근 견해들도 검토하여 첨성대 논쟁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첨성대”라는 명칭

오늘날 첨성대라고 하면 당연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의 첨성대를 가리킨

3 정연식, 『경주 첨성대의 기원』 (주류성, 2023); 김장훈, 『첨성대의 건축학적 수수께끼』 (동아사, 2019).

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는 경주 침성대 이외에도 다른 것을 지칭하는 침성대라는 이름이 더 등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시대의 침성대를 들 수 있다. 고려의 궁궐터였던 북한 개성의 만월대 서쪽에 남아 있는 침성대의 모습이 고려 침성대의 온전한 모습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⁴ 고려시대에도 경주의 침성대와 같은 이름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⁵

조선시대에도 침성대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조선 초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천문, [풍수]지리, 역수(曆數), 점산(占算), 측후(測候), 시각 측정(刻漏) 등을 담당했던 기관인 서운관(書雲觀)을 설치했는데, 서운관은 세조 때 관상감(觀象監)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조선의 천문대라 할 수 있는 서운관이나 관상감은 간의(簡儀)나 소간의(小簡儀) 등 천체 관측 기구를 설치하여 이용했던 시설인 관천대(觀天臺)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관천대를 침성대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⁶

조선시대에 침성대라는 명칭이 천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이전 시기에도 침성대가 천문대를 뜻하는 명칭이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고려시대의 개성 침성대가 천문대였을 가능성은 꽤 높다는 견해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⁷ 더구나 삼국시대의 경주 침성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

4 북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높이 약 3m 가량의 개성 침성대는 고려 침성대의 축대 부분에 해당하며 그 위에 2층의 구조물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 학계에서는 약 8.5m 정도의 침성대 복원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편, 『조선기술발전사 3: 고려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35-237과 사진 45-47. 하지만 침성대의 복원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전상운, 앞 책, 368-369을 참고.

5 비록 고려 이후 매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19세기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개성부의 읍지인 『중경지(中京誌)』 권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 K2-4307), 12에 “瞻星臺在滿月臺西”라는 기록이 있다.

6 이는 조선시대의 천문학사를 기록한 『서운관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본 [관상]감은 하나는 경복궁 영추문 안에 하나는 북부 광화방에 있었으며, … 모두 관천대(속명으로는 침성대라 한다)가 있다.” 성주덕 편저, 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주, 『서운관지』 (소명출판, 2003), 35. 또한 『정조실록』 37권 정조 17. 1. 16. 기사를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관상감 소속의 관천대를 침성대로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앞의 주 4의 북한 학계의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전상운, 『한국과학사』 (사이언스북스, 2000), 88-91; 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30-34; 박창범, 『한국의 전통 과학 천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95 등 우리 학계에서도 개성 침성대 역시 천문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고 있다. 심지어 현재 실물로 존재하고 있는 경주 첨성대가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사료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첨성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⁸ 물론 첨성대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첨성대가 문헌 속의 첨성대임을 부정하게 되면, 첨성대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첨성대 논쟁에서 첨성대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초점은 과연 첨성대가 건립되었을 7세기 무렵 신라에서 첨성대라는 명칭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첨성대를 천문대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당시에 도 첨성대라는 명칭이 조선시대처럼 천문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건립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시 첨성대라는 명칭이 천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첨성대를 천문대로 바라보는 경우, “첨성(瞻星)”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별을 바라본다는 뜻이므로 첨성대를 자연스럽게 별을 바라보는 높은 곳[臺]으로 이해하여 그 명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첨성대가 천문대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다양한 견해와 함께 첨성대라는 명칭이 천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면서, 첨성대라는 명칭이 기존의 해석처럼 “별을 바라보는 대”라는 점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설문해자(說文解字)』 등을 참고하여 첨성대라는 명칭에서 “첨(瞻)”이라는 글자가 보다, 쳐다보다, 자세히 살펴보다 등을 의미하므로 “첨성”을 별을 관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대(臺)”라는 글자는 대상을 관망할 수 있는 네모나고 높고 평탄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첨성대를 별을 관찰하기 위한 네모난 형태의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⁹ 또한 중국 고전에서 사용된 “첨성”과 “대”의 용례를 자세히 살펴서 첨성대를 (특정의) 별을 바라볼 목적으로 어떠한 기구를 올려놓거나 혹은 올라서기 위해 높이 쌓아올려 조성한 사각형의 축대나 누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¹⁰

8 전용훈, “이문규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제4차 첨성대 대토론회: 인문학과 과학으로 풀어보는 첨성대의 비밀』 (KIST, 2009), 13-14.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활식은 “이런 주장은 옛 문헌 기록들을 무시했기에 유발되었던 듯하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장활식, “첨성대 이름의 의미 해석”, 『문화재』 53:4 (2020), 24.

9 이문규, 앞 논문, 17.

침성대를 천문대가 아닌 다른 의미를 지닌 상징물로 이해하는 경우, 일단 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때 별을 바라보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침성대라는 명칭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¹¹ 이에 따라 “침성대라는 이름은 천문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침성대를 다른 시각에서 보려는 학자들에게는 앞을 가로막는 암울한 벽”¹²으로 느껴졌으며, “침성대가 천문대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제까지는 오로지 ‘별을 쳐다보는 대’라는 뜻의 침성대라는 이름 하나 뿐”¹³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활식은 침성대라는 명칭에 천착하여 “침성대라는 이름을 근거로 경주 침성대에서 천문관측을 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침성대’에 내포된 의미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유발되었던 오류”이며 “『삼국유사』의 ‘침성대’라는 이름은 천문관측대설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침성대는 “선덕여왕의 장례와 관련해 ‘도리천을 우리러본 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¹⁴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도리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덕여왕이 이 세상과 도리천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침성대를 건축했다고 이해하는 김기홍의 이른바 “도리천설”을 연상하게 하는데, 김기홍이 침성대를 이 세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일종의 우주목(宇宙木)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존재로 보는 데 비해, 장활식은 침성대를 도리천으로 통하는 일종의 계단을 가진 불탑처럼 여겼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¹⁵

침성대의 명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연식의 해석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먼저 “침성”이란 단어에는 별을 쳐다본다는 뜻과 함께 도교에서 북두칠성과 같은 별에 제사를 지내는 배두(拜斗) 그리고 별에 대한 숭모(崇慕)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침성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천문대로 단정하는

¹⁰ 서정화, “침성대 축조 의미 일고찰”, 『한국문화』 86 (2019), 81-89.

¹¹ 물론 예외도 있다. 침성대를 천문대가 아닌 일종의 상징물로 해석하면서도 침성대가 천문대였다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조세환, “침성대의 경관인식론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26:3 (1998), 178-188; 김기홍,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 비평사, 2000), 250-262 등을 들 수 있다.

¹²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침성대”, 『역사와 현실』 74 (2009), 302-303.

¹³ 정연식, “7세기 침성대 건립과 천문이변 기록 증가의 관련설에 대한 비판 —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서제이 기록의 통계 분석”, 『역사학보』 206 (2010), 311.

¹⁴ 장활식, 앞 논문, 23.

¹⁵ 김기홍, 앞 책, 259.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였다.¹⁶ 그리고 “첨성대는 대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대보다는 차라리 탑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대(臺)라고 한 이유에 대해 “선덕여왕 당시 한자 臺와 胎의 우리말 음은 같”아서 첨성대에 “별을 쳐다보는 胎와 臺의 이중적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첨성대에서 “별을 쳐다본다는 것은 사람이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우물[의 형태를 띤 첨성대]가 별을 쳐다본다는 것”이고 “그 우물은 아기를 잉태하는 태(胎)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하였다.¹⁷ 이에 더하여 첨성대가 점성대(占星臺)로 기록되기도 한 것에 대해, 당시 “瞻”과 “占”이 음과 뜻이 같은 통가자(通假字)였으므로 점성대라고 해도 “별을 보고 점을 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별을 쳐다보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¹⁸ 첨성대에 관한 그의 전체적인 견해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일단 점성대에서 그냥 별을 쳐다보기만 했을 뿐 별을 이용한 점을 치는 점성(占星)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첨성대를 천문대로 보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고대의 점성이 천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인해 점성대-첨성대-천문대와 같이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첨성대의 명칭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첨(瞻)”, “첨성(瞻星)”, “대(臺)” 등의 단어가 예전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첨성대(瞻星臺)”라는 명칭이 선덕여왕 때 축조한 건축물에 어떤 의미로 붙여졌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첨성”이란 단어가 별을 본다는 뜻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별이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로서 관찰의 대상을 의미하는지 도리천과 같이 불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별 또는 하늘로 승배의 대상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다.¹⁹ 그리고 별을 보는 주체가 천문을 담당했던 일

¹⁶ 정연식은 처음에는 “첨성대는 천문대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첨성대”, 356), 최근 다음과 같이 이를 수정하였다. “천문대의 이름으로는 ‘첨성대’보다는 ‘관성대(觀星臺)’나 ‘관천대(觀天臺)’가 더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천문대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는 없다.” 정연식, 앞 책, 170-171.

¹⁷ 정연식, 앞 책, 172-178.

¹⁸ 정연식, 앞 책, 178-187. 한편, 정연식은 『삼국유사』 「왕력(王歷)」의 “첨성대”를 잘못 쓴 표기라고 하기도 했다.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첨성대”, 360.

¹⁹ 정연식도 별을 천체의 하나라고 보았지만, 그 별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알리는 상징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했다.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첨성대”, 351-358.

반적인 관찰자인지 아니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선덕여왕 혹은 선덕여왕의 세계관을 대리할 만한 존재로 한정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별[星]”이라는 글자를 “하늘[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²⁰ 하늘이란 단어가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만이 아닌 종교적 또는 이념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점²¹을 고려하면, “침성대”라는 명칭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듯도 하지만, 아직도 침성대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침성대라는 명칭만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침성대의 형태

침성대의 모습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침성대의 아래쪽에는 네모난 모양의 기단부가 자리하고 있다. 기단부 위에는 27단의 원통부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좁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원통부 위 쪽에는 2단으로 이루어진 정상부가 네모난 모양으로 얹혀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독특한 모습이다.²²

침성대를 천문대로 이해할 경우에는 침성대의 독특한 형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독특한 형태만큼이나 독특한 침성대의 구조가 정상부까지 출입할 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침성대의 독특한 형태가 천문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성대를 특별한 상징물로 이해할 경우, 침성대의 형태에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침성대의 독특한 형태에 주목한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있었다. 예컨대 침성대의 형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 속의 수미산(須彌山)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견해나 천문 관측의 고전인 『주비산경(周髀算經)』의 내용을 반영하여 침성대를 축조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침성대 논쟁을 뜨겁게 하였다.²³ 한편,

²⁰ 이문규, 앞 논문, 17의 각주 56.

²¹ 이와 관련하여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문학과 지성사, 2000), 25-33을 참고.

²² 이동우, “경주 침성대의 축조에 관한 구조공학적 고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4:1 (1998), 62-63.

²³ 대표적인 예로 이용범, “침성대론의”, 『진단학보』 38 (1974), 27-48; 김용운, “침성대소고”, 『역사학보』 64 (1974), 95-114을 들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문규, 앞 논문, 8-13 등 이

당시 첨성대 논쟁의 과정에서 수미산설을 주장했던 이용범은 현존하는 신라의 고적 중에서 김유신의 생가로 전해지는 유적지에 있는 우물인 재매정(財買井)이 첨성대의 형태와 흡사하며, 신라인들이 우물과 우물물에 대해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⁴

첨성대의 독특한 형태를 우물과 연결하여 바라보는 관점은 이후 조세환과 김기홍의 연구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²⁵ 마침내 첨성대의 독특한 형태가 우물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이른바 “우물설”로 불리게 되었다. 우물설은 첨성대를 천문대가 아닌 상징물로 이해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둥글게 쌓아올린 몸통과 그 위에 올린 네모난 2단의 정자석은 땅 위로 솟아오른 우물을 연상하기에 충분했다. 연구자들은 ‘아니, 이렇게 뻥한 우물을 왜 진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하며 자책하기도 했다. 우물설은 첨성대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이제 기나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했다.”라고 할 정도였다.²⁶ 이에 따라 우물설을 계승하여 그 내용을 더욱 심화시킨 연구 결과들이 적지 않게 나오게 되었다.

첨성대의 형태를 우물로 이해하는 견해들은 크게 보아 첨성대를 우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와 첨성대의 형태를 우물로 보면서도 우물의 상징성에 더 주목한 견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첨성대의 형태를 우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첨성대의 독특한 형태를 재매정과 유사한 모양으로 보는 경우이다.²⁷ 다만 첨성대와 재매정의 유사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이용범이 첨성대의 형태를 우물을 땅 위에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한 데 비해, 이후의 논의에서는 대부분 우물을 땅 위로 올려 바로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라 하겠다.

첨성대의 원래 명칭이 “회의정(圉圉井)”이었다는 주장 역시 첨성대를 직접 우물로 본 경우이다.²⁸ 이에 따르면 첨성대 원통부의 19-20단의 길게 다듬은 돌

미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자세하게 다룬 것이 많으므로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²⁴ 이용범, 앞 논문, 44-45.

²⁵ 조세환, 앞 논문, 178-188; 김기홍, 앞 책, 250-262. 한편, 이들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이문규, 앞 논문, 15-16이나 서금식, “천문대로서의 첨성대 이설에 대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86(2017), 156-158에 정리되어 있다.

²⁶ 정연식, 앞 책, 52.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첨성대”, 302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²⁷ 김기홍 역시 첨성대의 형태를 재매정과 같은 모양으로 보았다. 김기홍, 앞 책, 258-259.

²⁸ 장운성·장활식, “첨성대 회위정 가설”,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463-501.

인 방틀석[장석(長石)이라고 부르기도 함]과 정상부 28단의 돌을 겹치면 “회(圀)”라는 글자가 되고, 25-26단의 방틀석과 28단의 돌을 겹치면 “의(圀)”라는 글자가 되며, 정상부 29단의 돌은 그 자체로 “정(井)”이라는 글자이므로 침성대 자체에 “회의정(圀井井)”이라는 우물 이름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때 “圀”와 “圀”는 각각 회(回)와 위(圍)의 이체자로서 회의정은 선덕여왕이 사후 도리천에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에워싸는 우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과 무관하게 침성대를 직접 우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²⁹ 또한 고대 서양 문명에서 있었던 천체 관측용 우물이라는 지식이 인도를 거쳐 신라에 전해져 침성대에 반영되었다는 가설 역시 침성대의 형태를 우물로 보는 견해에 속한다.³⁰

다음으로 침성대의 형태를 우물로 보면서도 우물의 상징성에 더 주목한 견해인데, 위에서 언급한 조세환과 김기홍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환은 당시 신라인들에게 우물은 신성함 자체로서 생명의 근원이자 풍요와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김기홍은 신라인들이 우물을 우주목(세계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이 제석(帝釋) 신앙을 가졌던 선덕여왕과 만나서 이 세상과 제석이 사는 도리천을 연결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 침성대를 건축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들 모두 우물이 가진 일종의 종교적 상징성에 주목했지만, 토착 신앙과 외래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돌의 관점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세환이 침성대를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래되어 내려온 토착 신앙에 기반한 조영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비해, 김기홍은 선덕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불교 신앙의 영향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침성대의 형태를 우물로 보면서 우물이 여성을 상징한다는 점에 주목한 견해가 제시되었다.³¹ 그에 따르면 침성대는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존호인 “성조황고(聖祖皇姑)”의 성조를 표상하는 여신의 신상이자 신전이었다고 한다. 이때 성조란 토착신앙의 하나로 여성을 신성하게 여겼던 여성 신앙의 연장선에서 자연의 여신이자 왕권의 근원이었던 “서술성모”를 말하는데, 우물 모양의 침

²⁹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서금석, 앞 논문, 160-161을 참고.

³⁰ 맹성렬, “침성대는 천문대인가?”,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0 (2017), 955-964.

³¹ 김명숙, “침성대, 여성 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32:3 (2019), 139-187.

성대가 바로 서술성모를 상징했다는 것이다.³²

한편, 침성대를 우물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해명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이미 정연식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침성대가 우물이라면 왜 위아래가 비슷한 크기의 원통이 아닌 아랫부분이 더 넓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나 침성대 원통부 중간인 13-15단의 남쪽면에 창문³³이 왜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³⁴ 이런 의문을 가진 정연식은 침성대를 “신라 왕실의 성스러운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우물과 성골 왕실의 성스러운 시조 석가모니가 태어난 마야부인의 몸을 겹쳐서 형상화한 것으로” 성골의 혈통을 지닌 선덕여왕의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로 보면서 해결하고자 했다.³⁵ 그에 따르면 침성대의 부풀어 오른 아랫부분은 마야부인의 엉덩이를, 중간에 있는 창구는 마야부인이 석가모니를 오른쪽 옆구리로 낳았다는 설화를 좇아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형상화한 것이라 했다. 이에 더하여 침성대가 월성 앞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단부와 정상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방향이 약간 북동쪽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쪽에서 온 마야부인이 동쪽을 향해 서서 침성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옆구리가 잘 보이게 왼쪽으로 약간 돌아선 모습이라고 하였다.³⁶

침성대를 우물과 마야부인의 몸을 겹쳐서 형상화한 상징물이라는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³⁷ 이러한 견해의

32 “서술성모(西述聖母)”는 신라의 서악(西岳)인 서술산에 있는 성스러운 여산신을 말하는데, 선도성모(仙桃聖母)라고도 불렀다. 서술성모가 박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천혜숙,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 16 (2007), 173-205을 참고.

33 창문은 창구라고도 하며, 출입구, 출입문 또는 개구부(開口部)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개구부가 창인지 문이었는데는 알 수 없으나, 개구부 하단에 있는 받침석에 홈이 파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문 역할이 있었던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침성대 실측 훼손도평가 조사보고서』 (2009), 31. 한편, 이 보고서와 더불어 문화유산 지식e음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한 『석조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침성대를 중심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역시 유용하다.

34 자세한 내용은 정연식, 앞 책, 188-194;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침성대”, 302-314을 참고.

35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침성대”, 318.

36 정연식, 앞 책, 195-212쪽;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침성대”, 314-318, 331-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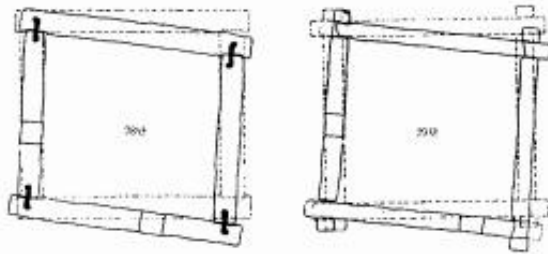
37 서금석은 정연식의 이러한 주장을 “대단히 파격적이고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금석, 앞 논문, 163-167을 참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침성대의 형태가 과연 우물과 같은 것인가, 최소한 침성대를 우물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다. 침성대를 다룬 여러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침성대를 보면서 우물과 같다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을 침성대를 위쪽이 오목하게 좁아진 술병 모양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여성의 치마를 떠올리기도 했다.³⁸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침성대를 왜 여러 연구자들은 우물이라고 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먼저 1962년 12월부터 침성대에 대한 실측을 처음으로 진행했던 홍사준의 실측 조사 보고서 중에서 “상부정자형석부(上部井字形石部)”라는 소제목을 가진 부분을 살펴보자.

원추형의 침성대 상부에는 정방형(正方形)으로 4개 장석이 상하 2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단[28단]은 남과 북에 1석[곧 긴돌(長石)] 하나씩 짝 두고 동과 서에 약간 적은 장석(長石) 머리를 반[치]기 위하여 남북의 장석 양단 내측을 약간 파 맞추고 그 돌머리를 맞춘 상면에는 은장(隱葬)을 철로 끼었던 듯 형적(形跡)이 있다. 그렇고 다음 상단[29단] 정자형(井字形) 석(石)들은 장석 양단을 상호 엇물리게 사우(四隅, 네 모퉁이)가 상하 반식(半式)을 파서 평면을 이루었다.³⁹

그림 1. 침성대 정상부 돌 배치도 (좌: 정상부 하단 28단, 우: 정상부 상단 29단)
[출처: 김장훈, 앞 책, 59]



<그림 1>과 같이 정상부에 배치된 돌들을 설명하고 있는 홍사준의 실측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자형(井字形)”이라는 단어이다.⁴⁰ 정상부 상단인 29

³⁸ 예를 들어 정연식, 앞 책, 188, 205-206의 각주에 소개된 여러 글을 참고.

³⁹ 홍사준, “경주 침성대 실측조서”, 『고고미술』 63·4 (1965), 64-65.

⁴⁰ <그림 1>을 포함하여 이 글에서 별도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그림의 출처는 국립문화재

단에 배치된 4개의 긴 돌을 보고(<그림 1>의 오른쪽) 그것이 한자의 우물 정(井)과 비슷하다고 하여 “정자형”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며 더욱이 정상부를 설명하는 부분에도 “정자형석부”라는 제목을 붙였다. 아마도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후 첨성대 정상부의 석재를 “정자석(井字石)”이라고 하다가 마침내 정상부 자체를 상부 정자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첨성대를 천문대로 이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다수 연구자들이 주저 없이 정자석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자석이라는 표현이 정설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첨성대를 우물로 보는 연구자들에게 정자석은 첨성대가 우물이라는 시각을 확신케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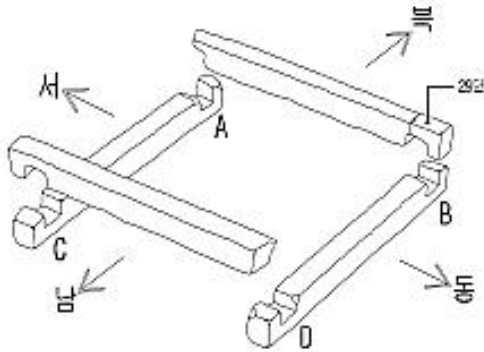
하지만 홍사준의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가 정자석이라는 표현 외에는 ①첨성대를 우물로 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②정상부 전체를 “정자형(井字形)”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네모난 “정방형(正方形)”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井)”이라는 한자는 오직 29단의 돌을 가리킬 때만 한 번 사용했는데, 이것 역시 돌이 배치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 ③<그림 2>와 같은 29단의 돌의 결합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부 2단에 사용되었던 각기 4개씩의 길다란 돌인 장석(長石)을 연결하기 위해 28단에서는 장석 위에 홈을 파서 금속으로 연결하는 방법(<그림 1>의 왼쪽에서 돌을 연결하는 검은 부분)을 사용했고, 29단에서는 장석 끝부분을 반씩 파내어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28단의 돌의 배치는 거의 정방형으로 되었지만, 29단에서는 돌을 단단하게 결합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네 귀퉁이 모두 장석의 끝부분이 조금씩 튀어나오게 되었다.⁴¹ 29단의 돌의 배치 또한 28단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정방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며,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우물을 뜻하는 “정(井)”보다는 정사각형과 같은 “口”에 더 가까울 것이다.⁴² 정방형의 돌에서 귀퉁이들이 조금 튀어나온 것을 보고 “井”이라는 한자로 표현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⁴³

연구소, 앞 책; 김장훈, 앞 책, 46-63이다. 이때 김장훈의 책에 있는 첨성대 도면 자료는 홍사준의 실측 도면 또는 그 사본으로, 경주의 민속학자 윤경렬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이동우에게 빌려준 것이라 한다. 이동우, “경주 첨성대의 축조에 관한 구조공학적 고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41 (1998), 74.

⁴¹ 정상부 28단이 네모난 모양으로 한자 입 구(口)와 같다는 지적은 장윤성·장활식, “첨성대 회위정 가설”, 475에도 있다.

⁴² 한자 “口”는 “국(國)”이나 “위(圍)”의 고자(古字)이지만, “口(입 구)”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림 2. 29단 돌의 결합 방식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33]



물론 홍사준이 29단의 돌을 정자형(井字形)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 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 즉, 20세기 초 본격적으로 침성대를 조사 연구했던 일 본인 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가 침성대 정상부를 설명하면서 우물 난간이라는 뜻의 “이게타(井桁)”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예가 있다.⁴⁴ 와다 유지는 침성대를 우물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정상부의 돌이 우물 난간처럼 보여서 “井桁”이라 한 것을 홍사준이 참고하여 “정자형(井字形)”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한편, “정자석(井字石)”이라는 표현은 주로 정상부의 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침성대 원통부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홍사준이 원통부를 설명할 때 “정자형장석(井字形長石)”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사준은 침성대 원통부의 19단에 가로로 놓여 있는 긴 돌과 20단에 세로로 놓여 있는 19단보다 조금 짧은 긴 돌(<그림 3>의 위쪽)을 합하여 “정자형장석”이라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5단과 26단에 있는 긴 돌(<그림 3>의 아래쪽)을 합하여 위

43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침성대 조사보고서에도 침성대의 “정상부는 사각형 모양이다”, “28단과 29단이 모두 같은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33. 한편 정연식, 앞 책, 56쪽; 정연식,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침성대”, 306쪽에는 침성대 정상부와 유사한 난간을 가진 정읍 김동수의 우물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699186282858> (2022. 12. 18 접속)에서 “재매정”을 검색해 보면 난간이 네모난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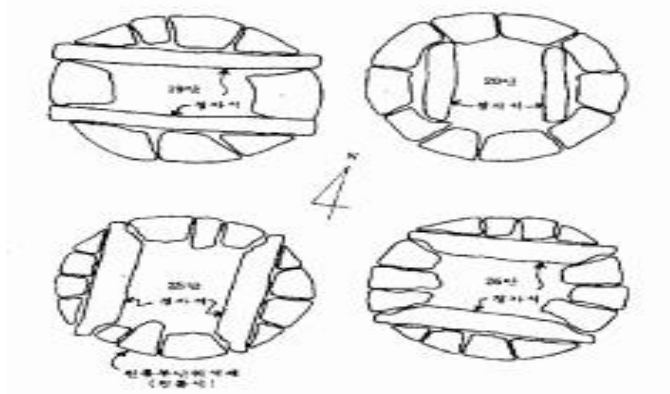
44 和田雄治, “慶州瞻星臺ノ説”,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朝鮮總督府觀測所, 1917), 148. 여기에서 와다 유지가 제시한 침성대 구조도에도 “井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구조도는 이문규, 앞 논문, 7에도 재록되어 있다.

45 정연식, 앞 책, 56.

에서 보면 정자형장석으로 보인다고 하였다.⁴⁶ 하지만 원통부 장석에 대한 홍사준의 이러한 설명 역시 엄밀하지는 않다. <그림 4> 위쪽의 그림과 같이 19단과 20단의 장석을 겹치면 그 모양은 “井”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글의 “교”처럼 보인다.⁴⁷ 25단과 26단을 겹친 <그림 4> 아래쪽의 그림은 위쪽 그림보다 “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굳이 “井”이라는 글자로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정자석(井字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침성대의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더욱 침성대를 우물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했던 정연식의 주장대로 침성대의 아랫부분을 마야부인의 엉덩이를, 원통부의 창문을 마야부인의 옆구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본다면, 침성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물이 아닌 마야부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건축물인 셈이다. 비록 정연식처럼 침성대가 우물과 마야부인의 몸을 겹쳐서 형상화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井)”이라는 글자를 제외했을 때 침성대의 형태에서 우물의 모습을 찾아내기란 매우 곤란하다. 또한 침성대의 네모난 기단부는 전혀 우물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침성대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것을 우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⁴⁸

그림 3. 침성대 원통부의 장석 (위: 19단과 20단, 아래: 25단과 26단)
[출처: 김장훈, 앞 책, 56-57]



46 홍사준, 앞 글, 64.

47 장윤성·장활식, “침성대 회위정 가설”, 473.

4. 침성대의 구조

선덕여왕 때 경주 남산 부근의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 침성대는 기단부(1단), 몸체에 해당하는 원통부(27단), 정상부(2단)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9.07m이다.⁴⁹ 기단부는 사각형의 석재 8개를 놓아 만든 지대석(址臺石) 위에 놓여 있는데, 지대석은 대부분 땅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다. 기단부는 가로(동서 방향) 5.31m, 세로(남북 방향) 5.34m인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고, 높이는 약 30cm이며,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19° 5' 52" 틀어져 있다[그림 5 참조]. 원통부 아랫부분까지 기단석이 깔려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네모난 모양의 2단의 정상부의 방향은 기단부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5° 39' 정도 회전한 모습이다. 정상부에 사용된 장석이 길이가 대략 3m 정도이므로 사각형 안쪽 기준으로 한 변의 길이가 대략 2.5m 정도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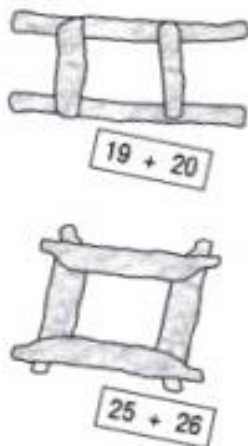
원통부 아랫부분은 들어쌓기를 하여 아래가 볼록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지만 윗부분 특히 19단부터는 거의 수직으로 쌓았다.⁵⁰ 원통부 아랫부분의 각 단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데 비해, 윗부분은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각 단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30cm 내외이다. 1단에서 12단까지의 원통부 내부는 갑석과 흙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위의 내부는 비어 있다. 12단부터 15단 사이의 남쪽면에는 폭 약 98cm, 높이 약 93cm인 정사각형에 가까운 창문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9, 20, 25, 26단에는 각기 2개의 장석이 놓여 있는데, 20단의 장석은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장석들은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밖에서 볼 수 있다. 27단에는 26단의 장석 위에 판석 하나를 얹혀 놓았다. 총 376개의 돌을 가지고 원통부를 내물림 구조로 쌓으면서 아랫부분에는 갑석과 흙으로 채우고 윗부분에는 장석

48 혹 누군가는 <그림 5>와 같이 침성대를 위에서 본 평면도를 보고 층층이 쌓아올린 돌의 모습이 마치 우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물은 안쪽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침성대의 외벽은 우물이라면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선덕여왕 당시 침성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단지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49 침성대의 실측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을 참고하였다.

50 이런 모습을 “원형 내물림(circular corbelling) 구조”라 한다. 이동우, 앞 논문, 65.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37-38에서는 내물림 대신 “퇴물림”이라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이다.

그림 4. 원통부 장석을 겹친 모습 [출처: 장윤성 등, “첨성대 회위정 가설”, 473-4]



을 배치함으로써 첨성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학적으로도 안정된 형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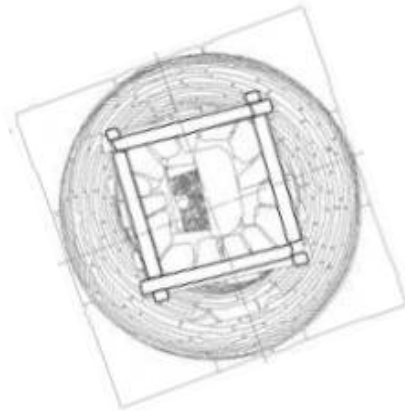
첨성대의 구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①첨성대의 방향, ②창문, ③출입 방법, ④정상부의 용도 등이 많은 논의되었으므로 하나씩 살펴보자. ①첨성대의 방향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첨성대가 <그림 5>와 같이 동서남북 정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또한 기단부와 정상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중간에 있는 창문이 정남에서 동쪽 약 16°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지구자기의 변화를 이용한 해석이나 동지일출 방향을 고려한 해석 등이 제시되지만,⁵²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자세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⁵³ 여기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앞

51 건축공학과 관련된 내용은 김장훈, 앞 책; 이동우, 앞 논문, 59-86을 참고.

52 박홍수, “첨성대의 천문측량”, 『한국과학사학회지』 11 (1979), 78; 박창범, “전통시대 천문현상 관측대로서의 첨성대의 특징과 영향”, 『제4차 첨성대 대토론회: 인문학과 과학으로 풀어보는 첨성대의 비밀』 (KAIST, 2009), 64-67 등.

53 첨성대의 방향에 대한 여러 주장과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연식, 앞 책, 282-305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5. 침성대 평면도 (위쪽이 북쪽)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33쪽, 183]



절에서 소개한 마야부인으로 침성대의 방향을 설명한 주장이나 침성대가 황룡사 구층탑을 향하면서 선덕여왕릉과 동지일출선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⁵⁴ 등은 그럴듯한 가설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진위를 가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히려 침성대의 방향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침성대에서 방향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침성대의 방향이나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침성대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침성대를 세울 당시 침성대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 생각을 침성대라는 건축물에 정확하게 구현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한다.⁵⁵ 하지만 아직 이를 충족시킬 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⁵⁶

54 장활식, “경주 침성대의 방향과 상징성”, 『신라문화』 42 (2013), 137-145.

55 혹시 침성대가 천문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상부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관측기구를 이용하여 천체의 방위와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육안 관측을 행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56 이와 관련하여 기단부의 중앙과 창문의 방향이 3° 정도 차이가 있게 한 것에서 아무런 의도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을 참고할 만하다. 김장훈, 앞 책, 138-140.

②창문에서 눈점은 방향, 위치, 크기, 용도, 상징 등이다. 이 가운데 창문의 방향은 위에서 살펴보았고, 나머지는 ③출입 방법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침성대의 창문을 통해 정상부까지 출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침성대는 내물림 구조로 돌을 쌓았으므로 외벽을 타고 침성대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⁵⁷ 하지만 일반적으로 침성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부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먼저 사다리를 이용하여 침성대 중간에 있는 창문까지 올라간다. 창문을 통해 침성대 내부로 들어간다. 침성대 내부의 12단까지 잡석과 흙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창문을 통해 침성대의 중간 높이까지 올라간 것이다. 이어서 13단부터 26단까지 비어 있는 내부에서 다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른 후, 판석 때문에 반만 열려 있는 27단을 지나 그 판석 위에 올라서면 정상부에 도달한 것이다.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침성대의 출입 방법은 한편으로 이른바 “천문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천문대설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침성대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거나 또는 이런 방법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침성대 정상까지 출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후자의 경우, “천문대설이 힘을 얻으려면 왜 천문대를 계단을 통해 쉽게 올라가서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관측하게 만들지 않고, 좁은 창구를 통해 들어가서 사다리를 놓고 반쪽짜리 구멍을 통해 가까스로 올라가서 울퉁불퉁하고 좁은 곳에서 천문 관측을 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천문대설을 비판했다.⁵⁸

침성대의 출입 방법을 두고 쉽다 어렵다, 불편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침성대의 독특한 구조 때문

57 예를 들어 “오마이포토의 1920년대 침성대 모습”, 『오마이뉴스』 2018. 3. 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298731&tag=%EC%B2%A8%EC%84%B1%EB%8C%80&gb=tag (2021. 12. 16 접속) 사진이나 배한철 기자, “경주 침성대 위엔 정자가 있었다?”, 『매일경제』 2019. 12. 16,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19/07/26255/> (2021. 12. 16 접속)의 1937년 촬영한 침성대 사진을 통해 학생들이 외벽을 타고 침성대에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CTV에 포착! 술 취해 침성대 오른 학생들”, YTN 2017. 8. 4, https://www.ytn.co.kr/_ln/0103_201708042303246020 (2021. 12. 16 접속)의 방송 영상을 통해서도 침성대 외벽을 어렵지 않게 오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58 정연식, “침성대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여러 학설 비판”, 『역사학보』 204 (2009), 365.

에 발생하는 이런 유별난 출입 방법이 천문대설의 지지 여부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천문대설을 지지하면서도 이런 출입 방법의 불편함을 지적한 경우도 있으며,⁵⁹ 천문대설을 비판하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침성대를 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⁶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침성대의 독특한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침성대의 정상부까지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출입할 때 창문, 비어 있는 내부, 반만 열려 있는 27단을 통로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점일 뿐이다.⁶¹ 이로써 “침성대의 구조 자체가 꼭대기[곧, 정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⁶²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한 이런 구조의 건축물이 세워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창문을 출입구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견해 자체를 아예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오래전에 나온 “주비산경설”이나 “수미산설”에서는 창문이나 출입 방법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으며,⁶³ 창문을 통해 들어온 태양광선을 보고 절기를 관측했다는 견해에서도 창문은 침성대의 출입과 무관한 것이었다.⁶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른바 “우물설”에서도 창문이나 출입 방법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아무리 상징물이라 하더라도 “중간 벽에 [창문처럼 커다란] 구멍이 난 우물은 제대로 된 우물이라기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⁶⁵

침성대를 일종의 상징물로 보고 창문 역시 그 상징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침성대의 형태를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창문이 여성

59 전상운, 『우리 과학 문화재의 한길에 서서』, 269.

60 정연식,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 358. 이후 정연식은 1년에 한번 대사제가 침성대에 올랐을 것이라는 당시 주장을 철회했다. 그렇지만 침성대를 “올라가는 건축물이 아닌 세워두는 건축물”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관리, 보수 등을 위한 특별한 출입은 인정하고 있다. 정연식, 앞 책, 355-356.

61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침성대 내부가 비어 있어서 그곳을 통해 위로 올랐다는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世宗實錄』 「地理志」 권150, 慶尙道, 慶州府, “瞻星臺: 在府城南隅 唐太宗貞觀七年癸巳 新羅善德女王所築. 累石爲之 上方下圓 高十九尺五寸 上周圍二十一尺六寸 下周圍三十五尺七寸. 通其中 人由中而上.”(밑줄은 필자 강조).

62 이문규, “과학문화재 침성대 읽기”, 『화학세계』 52:6 (2012), 45.

63 앞의 주 23.

64 전상운, “삼국 및 통일시라시대의 천문의기”, 『고문화』 3 (1964), 21. 이 글은 이후 전상운,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243-262에도 다시 실려 있다.

65 정연식, 앞 책, 194; 정연식,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 311.

의 성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이다.⁶⁶ 이때 여성은 선택여왕일 수도 있고 신성함을 가진 신앙의 대상일 수도 있으며,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인 여성 일반을 가리켜도 될 것이다. 하지만 첨성대를 여성으로 보게 되면 첨성대의 독특한 구조 즉, 내부의 비어 있는 통로나 반만 덮여 있는 정상 부분을 설명하기 곤란할 것이다.

첨성대를 우물이나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첨성대의 구조와 관련된 어색한 점은 얼핏 첨성대가 우물이면서 동시에 여성을 상징한다고 보면 없앨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⁶⁷ 즉, 원통부를 여성의 몸이라 하면 창문은 성기나 옆구리에 해당할 것이며, 비어 있는 내부 통로는 우물의 안쪽이고 정상부는 우물의 입구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상징이라 하더라도 첨성대를 보면서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의 외벽을 여성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은 우물이나 반쯤 열려 있는 우물 머리를 가진 속이 텅 비어 있는 여성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 것이다.⁶⁸

마지막으로 ④정상부의 용도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정상부의 용도 역시 주로 천문대설과 함께 논의되었다.⁶⁹ 첨성대 논의에서 정상부에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보는 견해는 천문대설뿐이기 때문이다. 천문대설에서는 아마도 천문학 전문가였을 첨성대 이용자가 창문을 통해 정상부에 올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 하면서 정상부가 그 용도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서는 사다리과 같은 것을 걸쳤을 것으로 보이는 창문 받침석에 남아 있는 흙이 파인 흔적과 원통부 27단에 있는 판석의 존재⁷⁰ 그리고 “[첨성대] 안이 통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 [정상부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천문을 살폈다.”⁷¹는 『동국여지승

66 조세환, 앞 논문, 186쪽; 조세환, “신라왕경의 공간구조 및 상징성과 첨성대”, 『제4차 첨성대 대토론회: 인문학과 과학으로 풀어보는 첨성대의 비밀』 (KAIST, 2009), 33-35; 김명숙, 앞 논문, 171-172 등.

67 실제 첨성대가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대부분 “우물설”에 기반하고 있다.

68 첨성대를 우물과 마야부인을 겹친 형상으로 이해할 경우,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으나 굳이 첨성대의 구조와 관련하여 이해하자면 원통부는 마야부인의 몸에, 창문은 마야부인의 옆구리, 원통부의 내부 통로는 우물의 안쪽, 정상 부분은 우물 입구가 되는 기이한 구조일 것이다.

69 물론 정상부에 불상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안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범, 앞 논문, 47.

70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9, 31.

람』의 기록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다.⁷² 정상부까지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27단의 판석 위에 혼천의와 같은 관측 기구를 설치해 놓았을 정상부는 천문학 활동을 수행하기에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정상부의 활동 공간 자체가 아주 좁고⁷³ 낮은 난간과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평탄하지 않은 바닥을 어떤 작업을 위한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천문대를 지을 때 침성대의 정상부와 같은 모습으로 바닥을 설계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⁷⁴ 이러한 견해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 상대방의 의견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거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 견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을 강화하고 있는 한 침성대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5. 침성대와 천문대

침성대에 관한 최근의 견해들을 자세하게 검토했던 서금석은 “침성대의 천문대 설을 부정하는 대부분의 이설은 바로 침성대의 형상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침성대의 형상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삼국유사』의 표현을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⁷⁵ 이와 같

71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중판; 1989), 80, “在府東南三里. 善德女王時 練石築臺 上方下圓 高十九尺 通其中. 人由中而上下 以候天文.” 이 기록은 앞의 주 61의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과 유사하지만, 침성대에서 천문을 살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72 이에 대해서는 정연식, 앞 책, 270-275, 353-358; 정연식,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 360-365이 자세하다.

73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상부 내부 한변의 길이를 약 2.5m로 추정하면 정상부 안쪽의 넓이는 6.25㎡가 된다. 하지만 정연식, 앞 책, 272-273쪽에서는 정상부 안쪽 넓이를 약 4.8㎡로 제시하였고, 이에 더해 실제 발을 딛고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약 1.8㎡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내부 면적에 대한 사소한 크기 차이는 전혀 중요하다고 없다고 본다.

74 정연식, 앞 책, 358.

75 서금석, 앞 논문, 184. 그리고 “이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152의 각주 7을 참고.

은 표현에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첨성대를 해석하는 일부 주장에서 첨성대의 형태만을 강조하거나 첨성대라는 명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설(異說)”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천문대설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서금석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 첨성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첨성대는 그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선덕여왕의 심상(心相)이나 성상(性相)과 상관한다. 많은 이설이 이 부분을 집중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첨성대는 단순해 보이지 않다. 그 형상대로 다목적 기능을 소화해야 했을 것이다. 왕의 권위에 맞춰 27단을 갖추었을 것이고, 시조의 탄생 설화를 모델로 하여 우물의 모양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것이 토착 신앙이든 불교적 입장이든 혹은 영성 제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했던 간에 첨성 활동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첨성대는 전통 시대의 천문대였던 것이다.⁷⁶

첨성대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천문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첨성대에 관한 여러 견해를 종합해 놓은 듯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얼핏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는 것이 모순(矛盾)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첨성대의 역할, 별을 보는[瞻星] 목적, 첨성대의 형태 등을 구분하여 생각한다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첨성대를 설계하고 건축할 때 정말로 이런 점 모두를 고려했을 것인가 즉, 첨성대가 본래 “다목적 기능을 소화해야 했”던 건축물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천문대를 건립하면서 그 건축물에 몇 가지 상징적 혹은 장식적 요소를 가미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첨성대를 천문대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는 또 다른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예컨대 첨성대를 영대(靈臺)로서 이해하는 경우이다.⁷⁷ 그에 따르면 첨성대를 세울 때, 고대 중국 특히 한(漢)에서 천문 변화를 관찰하고 역법과 기후, 음양과神明(神明)의 변화를 밝혀 재이(災異)를 방지하고 풍농을 기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영대 제도가 투영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

⁷⁶ 서금석, 같은 논문, 184.

⁷⁷ 김일권, “첨성대의 영대적 독법과 신라 왕경의 삼웅(三雍)제도 관점”, 『신라사학보』 18 (2010), 16-23.

라 침성대를 천문, 성점(星占), 망기(望氣), 측후(測候)를 수행하기 위한 “관대(觀臺)”로 볼 것을 제안했다. 침성대에서 이루어졌을 관측 대상을 천체만이 아니라 기후나 음양 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조짐(兆朕)들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침성대를 영대로 이해하면서도 침성대 원통부 27단을 항성월 주기 27.3일이나 불교 천문학의 27수에, 사각 기단부 2단과 정상부 2단을 더한 4라는 숫자를 4계절이나 4방위에, 원통부 창문 기준 위아래 12단을 합한 24라는 숫자를 24절기에 조응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다.⁷⁸ 이 역시 침성대에 관한 여러 해석들을 모두 담으려는 시도인 셈이다.

이처럼 침성대를 천문대로 보면서도 다른 견해들을 종합하는 듯한 견해와 달리 침성대를 관측대로만 보는 견해도 있다. 앞의 2절에서 소개했던 “침성의 대[瞻星臺]는 ‘(특정의) 별을 바라볼 목적으로 어떠한 기구를 올려놓거나 혹은 올라서기 위해 높이 쌓아올려 조성한 사각형의 축대나 누대’를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때 관측의 목적을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이용했던 점복(占卜) 행위의 하나인 점성(占星)으로 설명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침성대 정상부에 실제 관측용이든 전시용이든 혼천의를 올려놓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나 관측 대상인 별[星]을 황도대에서 관측되는 행성과 28수로 특정한 것⁷⁹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단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전통 천문학은 하늘에 있는 천체 모두를 주의깊게 살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성대에서 특정한 별만을 관측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리고 당시 천문학 상황을 고려할 때, 천체관측은 관측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육안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⁸⁰

기본적으로 침성대를 천문대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이들 견해들 모두에서 현대적 천문대가 아닌 전통 시대의 천문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침성대가 논란거리가 되었던 이유가 오늘날의 천문대와 같은 기준으로 침성대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⁸¹ 실제 침성대

78 김일권, 같은 논문, 26. 한편,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기단부에서 정상부까지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침성대의 단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12(1년의 달수), 24[절기], 27(항성월), 28[宿], 29와 30(1달의 날짜수), 33[天] 등과 같이 침성대의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조합하여 필요한 숫자를 작위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79 서정화, 앞 논문, 101-104.

80 이문규, 앞 논문, 25-26.

에 관한 초기 논의의 대부분은 천문대설을 지지하든 부정하든 첨성대에서 현대적인 천문대가 갖추어야 할 요소, 예컨대 산 위와 같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관측 기구를 이용하여 천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려는 모습을 찾으려 했다. 이들 견해를 포함하여 첨성대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이러한 시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더하여 고대 천문대에서 이루어졌을 실제 작업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진다면 천문대로서 첨성대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첨성대의 천문대설을 지지하면서 첨성대를 상징물로 보는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짚어야 할 점도 있다. 첨성대의 특정 형태에 주목하여 첨성대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견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문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천문대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첨성대와 같은 형태와 구조를 가진 천문대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천문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관측했을까 등과 같은 천문대의 성격을 더 깊이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일권의 지적처럼, 전통 천문학 전반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⁸²

또한 첨성대를 상징물로 보는 견해들도 대부분 천문대의 일차적인 기능인 “별을 바라본다[瞻星]”는 사실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별이나 하늘을 상징한다 해도 그것 또한 천문대에서 관측하는 별과 무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문대설과 상징설을 단순히 종합하는 것보다 당시 천문대의 성격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천문대설을 더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6. 맺음말

20세기 중반을 넘어서서 시작된 첨성대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간 첨성대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이 보

⁸¹ 이문규, 앞 논문, 28.

⁸² 김일권, 앞 논문, 17-18.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용훈이 “중국 천문학의 영향 속에서 한국의 고대 천문학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전용훈, 『한국 천문학사』 (들녘, 2017), 83.

이지 않는 상태이다. 물론 침성대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는 이전의 침성대 논쟁과 다른 모습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침성대 논의에서는 침성대를 우물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른바 우물설에도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두 “우물설”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침성대의 형태가 우물을 닮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여성성 등에 주목한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었다.⁸³ 아직은 상상이나 주관적 해석으로 보이는 이런 견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논쟁은 지속될 것 같다.

또한 전통적인 “천문대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도 주목할 만한 모습이다. 송상용은 2009년 침성대 논쟁을 검토하면서, “현재로는 침성대가 고전적인 의미의 천문대라는 주장이 대세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⁸⁴ 그럼에도 천문대설이 줄어든 것은 아마도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은 이상, 침성대가 천문대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침성대를 천문대로 보지 않는 다른 주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천문대설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침성대에 여러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들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또한 독특한 모습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침성대를 상징물로 이해하면서도 천문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게 천문대설을 주장하면서도 침성대의 상징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⁸⁵ 하지만 침성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침성대를 천문대이자 상징물로 보려는 이런 시도가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침성대에 관한 논의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의 침성대 논쟁을 거치면서 합의된 점이나 다양한 견해들 사이에서 최소한 쉽게 부정되지 않는 지점들과 그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에 남아 있는 독특한 모습의 석조 건축물의 명칭이 침성대라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다.

83 이런 점은 이른바 “천문대설”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지적할 수 있다. 침성대가 천문대였다고 하는 주장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물설”이나 “천문대설” 모두 그것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84 송상용, “침성대 논쟁 I, II, III을 돌아본다”, 『제4차 침성대 대토론회: 인문학과 과학으로 풀어보는 침성대의 비밀』, 5.

85 앞의 주 11.

둘째, 첨성대가 선덕여왕 때 세워졌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첨성대를 선덕여왕과의 관련성 예컨대 선덕여왕이 첨성대를 건립한 의도나 목적, 선덕여왕의 불교적 세계관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첨성대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첨성대에서 선덕여왕의 의도나 사상 등을 당연히 찾을 수 있다”거나 “첨성대에는 반드시 선덕여왕이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와 같은 표현은 개연성과 사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어쩌면 첨성대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그저 선덕여왕 때 세워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경주에 남아 있는 첨성대의 형태와 구조가 다른 석조 건축물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독특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첨성대가 이처럼 독특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게 된 의도, 배경,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은 말 그대로 단지 짐작일 뿐이다. 첨성대의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만을 취하여 그것을 단서로 삼아 자신만의 추정과 상상을 더하여 얻어낸 짐작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더 이상 생산적인 첨성대 논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넷째, 기록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첨성대에 관한 문헌 기록이 매우 적다는 점이 첨성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고 또 지속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⁸⁶ 일단, 첨성대가 제작되었을 당시의 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첨성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첨성대가 건립된 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편찬된 『삼국유사』에 들어 있다. 『삼국유사』와 함께 그보다 더 뒤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첨성대에 대한 논의에서 직접 참고할 만한 기록이다.⁸⁷ 물론 이들 문헌에 기록된 자료들을 사료 비판의 측면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수는 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별다른 의심 없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졌던 이들 기록에 대한 의심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비어 있는 첨성대 내부를 통해 정상부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을 자의적으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주 올라갔다”, “올라갈 수 있지만 너무 불편하여 실제 올라가기에

86 이문규, 앞 논문, 5.

87 이들 기록을 포함하여 더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장활식, “첨성대 옛 기록의 분석”, 『신라 문화』 39 (2012), 117-158을 참고.

매우 부적절하다”,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갈 필요조차 없다”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문을 살폈다”는 기록은 “천문”의 의미가 무엇이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추정만으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침성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덧붙인 기록이라고 단정할 때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칫 다른 모든 이들은 잘못 알고 있고 오직 자신만이 침성대를 건립한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별을 보는 높은 곳”이라는 침성대의 명칭을 이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별을 본다는 행위가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어도, “침성대 위에서 별을 보지 않았다”거나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상상의 별 또는 하늘일 뿐”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기 곤란하게 만드는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투고: 2023년 11월 9일,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3일)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heomseongdae Debate

YI Moon Ky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eomseongdae in Gyeongju is the oldest astronomical observatory in the world and a representative scientific cultural heritage in Korea. However, in the mid twentieth century, suspicions were raised that Cheomseongdae might not be an observatory. As these suspicions piled up, a heated debate began about Cheomseongdae, which is still ongoing.

I will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Cheomseongdae debate based on recent research results. First, some researchers interpreted the name Cheomseongdae as an astronomical observatory. However, other researchers interpreted the term “Chumseong[瞻星]” and the word “Dae[臺]” as symbolic. Second, many researchers view the shape of Cheomseongdae as a well since the shape of the top of Cheomseongdae resembles the letter “jeong(井),” which means a well. Third, there wer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 unique structure of Cheomseongdae. Some said that it could not be seen as an observatory because it was inconvenient to climb to the top. On the contrary, some viewed it as an observatory because one could go up to the top of Cheomseongdae.

The Cheomseongdae debate is unlikely to end easily. In order to end the Cheomseongdae debat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stinguish between the factual contents of Cheomseongdae and the imagination felt after seeing it. And historical data should not be interpreted based on personal speculation or improper grounds.

Keyword. Chumseongdae[瞻星臺], astronomical observatory, Queen Seondeok of Silla[善德女王], an interpretation that Cheomseongdae is a well[井], a theory that sees Cheomseongdae as a symbol